

□ 국내 도서 안내

2009. 04. 13. (월) | 편집진

<학문과 교육(중권)-교육이란 무엇인가>

장상호 | 서울대학교 출판부 교육학총서 | 2005

학교의 일상적 생활(학교태)과 구분되는 '교육'을 교육학 고유의 개념과 이론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교육학 저서이다. 학문 활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학문을 다루는 '학문과 교육(상권)-학문이란 무엇인가(1997)'에서부터, 학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생성과 발전 및 진리의 입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면서 진리체험에 교육이 개입하고 기여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학문과 교육(하권)-교육적인식론(2000)'까지 10여년이 넘는 일련의 장대한 연구의 결정체 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최근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중등학교의 운영과 경영에 대한 학제적 접근으로서의 기존의 교육학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교육활동의 내재적 가치와 이에 참여하는 인간의 다양한 면모, 대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문을 소재로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의 '고등교육'을 보여준다. 중권의 2,3 권이 이어서 출판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학문과 교육 시리즈를 대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학교 제한적 교육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교육관을 정립해 나가는 모험적인 도전감과 대학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발판을 제시하는 든든한 이론적 토대를 만나는 기쁨을 준다. 물론 '우리말로 쓰여진 책'이나, '교육에 관한 책'은 '비교적 읽기가 수월하다'는 우리의 일반적 편견을 깨기에 충분할 만큼의 '분량'과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 읽는 애로도 만만찮다. 그러나 읽기가 쉽지 않다고 불평하는 제자들(수강생)에게 지금도 집필에 전념하는 노학자는 한마디 던진다, '이 사람들아, 두껍다고? 이런... 쓴 사람도 있네.'

<몰입의 즐거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 | 이희재 옮김 | 해냄출판사 | 2007

(원제: Finding Flow: The Psychology of Engagement with Everyday Life)

'몰입(flow)'의 의미에 대하여, 창의성에 대하여 연구해온 교육학과 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칙센트미하이 시카고 대학 교수가 1997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몰입의 즐거움>을 개정 출간하였다. '몰입'이란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전적으로 주체가 자발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일컫는다. 칙센트미하이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는 순간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몰입하지 않고 맛보는 행복은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몰입에 의해 행복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것이므로 더 값지며 자기발전을 가지고 온다. 자기가 바로 발전할 수 있는 다음 수준의 과제가 앞에 있을 때, 스스로 최선을 다해 몰입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배움'이나 '놀이'에서 진정한 의미의 몰입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면 이는 교육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근거가 된다. 창의성과 보람은 몰입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래마인드 -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 다섯 가지 마음 능력>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 | 김한영 역 | 재인 | 2008

(원제: Five Minds for the Future)

다중지능이론을 제창한 세계적인 석학이자 하버드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최근저서이다. 이 책에서 그는 미래가 요청하는 인간 마음의 능력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훈련된 마음', '종합하는 마음', '창조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윤리적인 마음'이 그것이다. 인간의 지능이 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고 제시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숨겨진 다양한 '적성'과 '소질'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학문만을 중요시하던 지성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예술과 문학과 스포츠 등 풍부한 인간 삶의 제 영역이 가진 가치에 눈뜰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준 저자가, 이제는 미래를 위하여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인간 마음의 능력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뛰어난 통찰과 엄격한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그의 이해의 여정에 또 다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책이며, 현재 여건에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교육 담당자들이 시간을 뛰어넘어 미래를 이해할 예지가 필요한 시점에 직면하였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책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외 도서 안내

2009. 04. 13. (월) | 편집진

First We Read, Then We Write: Emerson on the Creative Process

Richardson, R.D. | University of Iowa Press | 2009

이 책의 저자인 Richardson은 미국의 평론가이며 시인이자 철학자인 에머슨(Emerson, R.W.)의 전기 작가이다. 저자는 '괜찮은' 글쓰기와 '훌륭한' 글쓰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교훈을 주는 위인들의 작업물들을 수집해왔다. 이 책은 글쓰기에 대한 책으로, 에머슨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운 좋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에머슨 자신이 직접 사용했을만한 책이다. 문장에 대한 장이 매우 뛰어나서, 그 장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한 소장 가치가 있다. 글쓰기에 대해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이 책을 읽어야만 할 것이다.

Richardson is Emerson's foremost biographer, and he has culled the great man's work for the kind of specific, timeless instruction that makes the differences between good writing and great writing. This is the book on writing that Emerson would have used to teach his lucky students. The chapter on sentences sparkles, and it alone is worth the purchase. Everyone who wants to learn about writing should read this book.

(인용: Cheever, S., author)

Owen's Ape and Darwin's Bulldog: Beyond Darwinism and Creationism

Cosans, C.E. | Indiana University Press | 2000

이 책은 인간과 유인원의 뇌의 차이에 대해 오언(R. Owen)과 헉슬리(T. Huxley)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소개하면서, 다윈(C. Darwin)의 『종의 기원』 출판 전후 진화에 대한 논의에 철학적 사고와 과학적 실체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하고 있다. 저자는 오언과 헉슬리의 논쟁이 과학적 실체에 대한 현대 철학적 관념에 어떤 영감을 주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철학적 관념이 결국 과학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과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언의 해부학적 주장이 더 많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오언-헉슬리 논쟁에 대한 현대 역사적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 책에 대해 『Darwinism and Its Discontents』의 저자인 루스(M. Ruse)는 “오언-헉슬리 논쟁에 대한 새롭고 매력적인 시각을 담은 이 책은 다윈의 진화에 대한 알팍한 현재 논쟁에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했다.

. With the debate between Richard Owen and Thomas Huxley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pe and human brains as its focus, this book explores some of the ways in which philosophical ideas and scientific practice influenced the discussion of evolution in the years before and after Darwin's publication of "Origin of Species" in 1859. It also shows how this episode can shed light on current philosophical notions of scientific practice and how they in turn influence ou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science. The book advances the current historical discussion of the Owen-Huxley debate by making clear that Owen's anatomical claims had much more support than most historians and philosophers of science assume.

. "A fascinating new look at the Owen-Huxley controversy [that] gives us important insight into a hitherto thinly discussed aspect of the Darwinian Revolution."

(인용: Michael Ruse, author of Darwinism and Its Discontents)

The Politics of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How the Laureates were selected, 1901-2007

Wires, R. | NewYork: Lewiston | 2009

이 책은 노벨 수상자의 선정에 정치가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즉, 저자는 단지 선정자 특성과 수상 기준에 대한 불일치뿐만 아니라, 국가적, 지역적, 국제관계, 언어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공동체 사이의 경쟁과 조화가 노벨 수상자의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노벨상 수상자 선정과 그 과정에서 특히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100년 전 노벨상이 소개된 이래 스웨덴 학술원의 구성원들이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살펴보았다. 저자는 노벨상 수상자 선출 배경에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해 각각 검토함으로써, 권력의 상호작용과 수상자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이면서도 전체적인 패턴 속에서 이루어진 저자의 고찰을 읽음으로써, 독자는 어째서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작가가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으며, 세간에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현대문학과 문화 및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에게 뿐만 아니라, 학문 세계 저 너머에 있는 진지한 독자에게도 틀림없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This work examines the influence of politics on the selection of Nobel laureates in not only disagreements over the nature of literature, its aims, and prize criteria, but also the role of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ncerns, and the impact of rivalries and balances among linguistic, cultural, and ideological group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members of the Swedish Academy have chosen the winners of the Nobel Peace Prize in Literature since the award was introduced a century ago. Its special focus is the part that politics, broadly defined, has played in the process and selections. Thus the inquiry looks at the influence of politics in many different forms. Through review of the specific situation behind every laureate's selection, the study reveals the interplay of forces and suggests how each decision was reached, placing it within both an historical and overall pattern. Such examinations allow readers to understand why so many little-known writers became laureates and why so many highly regarded figures in world literature were never honored. The study will appeal to scholars in modern literature and cultural and intellectual history but also to serious readers beyond the academic world.
(인용: www.mellenpress.com)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제학술대회

2009. 04. 13. (월) | 편집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이 주관하는 제 5 회 기초교양교육 국제학술대회가 '아시아 대학 교양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을 묻는다'는 주제로 2009년 6월 11일 목요일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61동 320호)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학술대회는 올해 5년차로서 매해 300여명에 가까운 국내 대학교육 담당교수와 책임기관의 장, 그리고 세계 각국의 대학교 기초교양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교육 관련 국제학술대회이다. 올해에는 동경대학교 고마바캠퍼스의 신임 야마가케 교양학부장과 동아시아학술원장을 역임한 성균관대학교 임형택 교수의 기조강연을 비롯하여, 싱가포르를 비롯한 국내외 참여자들의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통하여 본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대학 기초교양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보다 나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교양교육학회,대학교양교육협의회

2009. 04. 13. (월) | 편집진

한국교양교육학회는 2009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를 대학교양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예정된 날짜는 2009년 6월 12일(금)이고, 장소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논문과 사례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회가 요청하는 주제 이외에도 개인 및 공동 논문발표가 가능하다고 한다. 논문발표 희망자는 2009년 4월 15일까지 발표자의 이름과 소속, 발표논문제목을 명기하여 학회 메일주소(kagedu@hotmail.com)로 신청해야 한다.

<다음>

- 1. 입시모집 단위의 변화와 교양교육
- 1. 입학사정관 제도와 교양교육의 관련성
- 1. 공학인증제도와 교양교육
- 1. 교양교육에서의 수준별 교육 실태
- 1. 자유전공제도와 운영 실태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이)용할 수 있습니다.